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 최하위권…‘역외 쇼핑’ 영향?

작년 총 1조8893억원 5년새 17.7% 증가 불구

울산 이어 특·광역시 6위…백화점 56.3% 차지

지난해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조889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가데이터센터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8893억원으로 2020년(1조6054억원) 대비 17.7%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23년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월별 편차는 발생했으나,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판매액을 보면 울산이 1조6835억원으로 가장 낮았고, 광주 1조8893억원, 대전 2조9611억원, 인천 3조281억원, 대구 4조6161억원, 부산 6조8610억원,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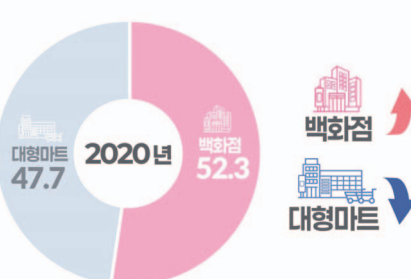
울 2조58211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 구성비는 백화점 56.3%, 대형마트 43.7%로 조사됐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단위: 억원, %>



대형소매점 판매액 구성비 <단위: %>



자료제공: 호남지방통계청

광주 백화점 판매액 구성비는 전국 평균(52.3%)보다 4.0%p 높았고, 광주 대형마트 판매액 구성비는 전국 평균(47.7%)보다 4.0%p 낮았다.

이와함께 2020년 대비 지난해 광주 백화점의 판매액 구성비는 4.0%p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구성비는 4.0%p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1.8(2020=100)로 2020년 대비 1.8% 증가했고, 증가율이 7개 특별·광역시 중 여섯 번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25.6%로 가장 높았고, 서울 20.6%, 부산 12.2%, 인천 10.2%, 대구 7.2%, 광주 1.8%, 울산 -5.2% 순이었다.

지난해 광주 백화점 판매액 지수는 111.3(2020=100)으로 2020년 대비 11.3%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91.3(2020=100)으로 2020년 대비 8.7% 감소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보성읍 송재리에서 열린 '보성군농협 통합RPC 시설현대화 준공식'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통합RPC 발전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보성 통합RPC 준공…쌀산업 경쟁력 강화

149억 투입해 하루 80t 가공시스템 가동

전남형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구축 박차

전남도가 보성군 통합 미국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를 통해 지역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졌다.

전남도는 5일 보성군농협 통합RPC 시설현대화 준공식을 열고, 첨단 설비를 갖춘 통합 가공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철우 보성군수, 이동현·김재철 도의원, 박서흥 농협경제지주 대표, 문병환 보성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전남지역 조합장과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49억

원(국비 40%, 도비 6%, 군비 14%, 자담 40%)이 투입됐다.

부지면적 1만927㎡(3305평), 건축면적 4499㎡(1362평) 규모로 조성된 보성통합RPC는 하루 80t의 쌀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새로 구축된 가공라인에는 현미부 12t, 백미부 10t, 포장부 30t, 원료투입부 30t 등 최신 설비가 적용됐다. 또한 5기의 신규 사일로를 설치해 6000t 규모의 추가 저장시설을 확보, 수확기 집중 출하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보성통합RPC는 지난 2005년 보성·별교·득량·북부농협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올해는 2025년산 벼 2만

5000t 매입을 추진하며 조합원 농가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시설현대화를 계기로 지역 RPC 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제값 받는 농정은 농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보성의 4개 농협이 뜻을 모아 완성한 통합RPC가 전남 쌀 산업의 품질 혁신과 농가소득 증대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해남·담양·강진·나주·보성·영암 등지에 총 1000여원을 투입해 RPC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함평군을 포함한 4개 RPC를 대상으로 195억원 규모의 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국내 광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입증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폐막…수출 1000만달러 결실

지난달 30~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PHOTONICS KOREA 2025 (제23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가 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광기술을 접목한 신기술이 대거 공개되며, 국내 광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KT, 한국알프스, 옵토닉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내외 광융합산업 관련 7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130여개 부스 규모로 열린 행사장에는 반도체·AI·에너지·광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광융합 기

술이 총집결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한국알프스㈜는 비접촉 조작장치 ‘스텔스 에어리얼 인터페이스’와 나노 단위 가공을 통해 자유로운 광학 디자인이 가능한 ‘라이트가이드 플랫폼’, 정밀 금형기술과 유리몰드 기술로 고효율을 구현한 ‘비구면 글라스 렌즈’ 등을 선보였다.

㈜옵토닉스는 체형분석 플랫폼 ‘팅고바디’와 ‘편광상이 밸런스 광검출기(PBPD)’를, ㈜오이슬루션은 400Gbps급 이상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광트랜시버’를 공개했다.

㈜에니캐스팅에스는 국내 표준 모듈용 어레이와 조명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렌즈 제품군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특히 KT는 협력사들과 함께 ‘상생협력관’을 운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협력사 제품과 기술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질적 협력 기회를 제공해 현장감을 담은 업계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 기간 열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미주·아시아 등 8개국 8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했다. 국내 광융합 기업들과 총 116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으며, 3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함께 ㈜나눔테크, ㈜윌모타린 등 국내 기업들이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계약 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해외 마케팅센터의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와 후속 지원 덕분에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시회 참가 기업들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제조업·건설업 부진…호남권 경기 악화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은 소폭 개선

호남지역의 3분기 경기가 제조업, 건설업의 동반 부진으로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전북·목포본부가 내놓은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철강이 선전했으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는 부진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반도체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와 반사이익으로 국내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2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는 미국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개선 지연, 업황 부진 등으로 생산이 부진했다.

서비스업은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증가했다. 운수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업은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숙박·음식업은 높은 외식물가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익

늘었다.

부동산업은 아파트 준공 물량은 증가했으나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2분기보다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부문은 착공면적이 줄어들었으나 분양시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소폭 감소했고, 공공 부문은 SOC 예산 집행액이 줄어들면서 감소했다.

한편, 향후 4분기 호남권 경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자동차 관세 인하와 조선수요 회복, 소비 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점진적 반등이 기대됐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